

# 비평가들이 주목한 90년대의 시집

## 90년 이후 문학지 서평대상 시집목록

대형서점의 게시판이나 일간지 지면에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일반적인 도서대중의 관심과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각 분야별 전문지·誌의 서평 대상 도서목록은 해당부문 전문가집단의 관심과 주목을 끈 책이 어떤 것들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조가 된다.

시집의 경우 그같은 대조는 극과 극이라 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컨대 90년 이후만 보더라도 평균적인 독자들이 즐겨 찾은 시집의 목록과, 문학지널 및 비평가집단이 서평이란 형식으로 주목한 시집의 목록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공통집합이 없다시피하다. 이같은 불일치는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취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비평가들의 '전문적인 평판'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학지 서평대상 시집목록은 우리들의 주목을 끈다.

월평 등 작품평이 아닌 서평을 매호 거의 고정적으로 싣고 있는 계간 「문학과사회」 「세계의문학」 「실천문학」 「창작과비평」 「현대시사상」 「현대시세계」 및 월간 「현대시학」의 90년 봄호 및 1월호 이후에 게재된 서평대상 시집목록을 다음에 정리한다.(물론 단순히 서평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집이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평판을 얻어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서평대상 시집 선정이 문학지 편집자의 '주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앞의 문학지를 내는 출판사들이 대부분 시집출판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중 3회 이상 서평대상이 됐던 시집은 「길찾기」 「가을 악견산」 「그 여름의 끝」 「갈 수 없는 쓸쓸함」 「개같은 날들의 기록」 「개눈 속의 연꽃」 「다시 시작하는 나비」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 「마음속 붉은 꽃잎」 「비디오/천국」 「별들은 따뜻하다」 「심야의 일기예보」 「성에꽃」 「슬픔이 나를 깨운다」 「서울 세노야」 「사랑의 저쪽」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우리 낯선 사람들」 「우울씨의 일일」 「안보이는 너의 손바닥 위에」 「잘가라 내청춘」 「장마는 아이들을 눈뜨게 하고」 등이다.

- 가을 악견산(박태일)
- 가족사진(최영철)
- 갈 수 없는 쓸쓸함(황학주)
- 개 같은 날들의 기록(김신용)



- 검은 소에 관한 기억(채성병)
- 검은 지층(최계선)
- 개 눈 속의 연꽃(황지우)
- 광화문 네거리의 안개주의보(김추인)
- 구파발 시(이유경)
- 그 여름의 끝(이성복)
- 기차에 대하여(김정환)
- 길(신경림)
- 길찾기(박세현)
- 김포행 막차(박철)
- 깊은 곳에 그물(남진우)
- 꿈에 보는 폭설(문형렬)
- 내 울음은 노래가 아니다(이생진)
- 내일로 가는 소(이상국)
- 너라는 환상(이승훈)
- 다시 고향에서(홍신선)
- 다시 불러보는 벗들(박선옥)
- 다시 시작하는 나비(김정란)
- 달이 지는 곳으로(이진호)
- 도화동 사십 계단(김주대)
-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담고(백무산)
- 따뜻한 길 위의 편지(박용계)
- 땅의 뿌리 그 깊은 속(배진성)
- 떠나는 그대 눈부신 명상입니다(21세기전망 동인)
- 떠돌이의 노래(김윤배)
- 뜸복새는 울지도 않았다(김건일)
- 러시아집 폐설(박남철)
- 마음 속 붉은 꽃잎(송기원)
-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이윤택)

- 매혹(김영태)
- 모두모두 즐거워서 술도 먹고 떡도 먹고(박은식)
- 무림일기(유하)
- 문밖에 계시는 아버지(이정주)
- 물음표를 위하여(강창민)
- 물증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박상우)
- 미미의 집(윤계림)
- 민둥산의 하루밤(류환)
- 바람부는 날은 지하철을 타고(김종혜)
- 반반 울리는 피리(최명길)
- 방아깨비의 꿈(문충성)
- 별들은 따뜻하다(정호승)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정진규)
- 별발을 우러르며(김지하)
- 불란서 영화처럼(전연옥)
- 비디오/천국(하재봉)
- 사랑의 변주곡(최하림)
- 사랑의 저쪽(오세영)
- 사랑 찾으러 새날이 온다(신서정 7인 동인)
-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임동화)
- 새벽 꽃향기(이성선)
- 생각나지 않는 꿈(오탁번)
- 서울 세노야(곽재구)
- 서울 아이들(윤동재)
-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박라연)
- 성에꽃(최두석)
-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박남준)
- 세상의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문인수)
- 세속도시의 즐거움(최승호)

- 세월의 거지(김갑수)
- 소돔성 1990(윤성근)
- 슬픈 임금님을 위하여(서경은)
- 슬픔이 나를 깨운다(황인숙)
- 심야의 일기예보(이형기)
- 아내일기(양정자)
- 아니리(김광규)
- 아름다운 폐인(김영승)
- 아무도 없어요(박서원)
- 아침이슬(고은)
- 안보이는 너의 손바닥 위에(이태수)
- 얼굴없는 사람과의 약속(정한용)
- 오늘의 운세(유용주)
- 오늘이 그날이다(김중철)
- 오래 기억나지 않는 겨울을 위하여(강제운)
-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이재무)
- 우리 낯선 사람들(이하석)
- 우리들의 음화(김해순)
- 우리시대의 예수(김진경)
- 우울씨의 일일(함민복)
- 월동추(강세환)
- 유치관관(구상·중광)
- 이탈한 자가 문득(21세기전망 동인)
- 일기를 구기대(양선희)
- 잘가라 내청춘(이상희)
-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최성수)
- 장마는 아이들을 눈뜨게 하고(정화진)
- 조국은 하나다(김남주)
- 조선의 아이들은 푸르다(이봉환)
-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고진하)
- 철마의 꿈(이탄)
- 철쭉꽃 연봉은 사랑(박몽구)
- 초당동 소나무떼(신봉승)
- 폭우와 어둠 저 너머의 시(한택수)
- 푸닥거리(민용태)
- 하늘 아래의 생(오규원)
- 하이어나(이건청)
-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정희성)
- 한라의 저녁 마라도의 새벽(손종호)
- 해뜨는 검은 땅(박영희)
- 해체시집(시운동 동인)
- 햇볕 쬐러 나오다가(김익두)
- 환상시첩(황근식)
- 흔들리는 중심(박의상)